메트로 2013년 5월 15일 수요일 제2752호 www.metroseoul.co.kr

Sports p/22

삼성 7연승으로 선두 경쟁

400년만에 끝난 '위패 서열 싸움'

NEWS p/02

분당선 역세권 아파트값 11억 최고

NEWS p/03

통신비 절감 '3종 세트' 내놨다

● 우체국서도 알뜰폰 판매 ● LTE 선택형 요금제 도입 ● 3분기 이통가입비 40% 인하

직장인 박영권(53)씨는 매달 스마트폰 요금 고지서를 볼 때마다 한 숨이 나온다. 스마트폰이 대세라는 사회 분위기 탓에 지난달 큰 아내와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까지 스마트폰을 차례로 구입하면서 월 가계 통신비 부담이 무려 15만원을 훌쩍 넘기 때문이다. 월 7만원대에 가족 모두 피처폰을 이용하던 1년 전에 비해 통화량이 크게 늘어난 것도 아닌데 비용 부담은 두 배가 넘어 이만저만 아까운 것이 아니다.

정부가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갈수록 힘들게 만드는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통신비 절감 3종 세트'. 알뜰폰 시장을 키우고 LTE 선택형 요금제를 도입하는 한편 가입비도 인하해 개인당 월평균 1만5000원 이상의 요금 인하 효과를 발생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 경쟁 활성화와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을 14일 발표했다.

우선 이동통신사에 비해 유통망이 취약한 CJ헬로비전, KCT(한국케이블텔레콤), 온세텔레콤 등의 알뜰폰 판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9월부터 우체국에서도 알뜰폰을 판매할 예정이다. 전국 3600여 개의 우체국에서 판매하기 시작하면 기존 이동통신 서비스보다 20~30% 저렴한 알뜰폰의 요금 장점이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미래부는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요금 경쟁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망 사용료(도매대가)도 지난해보다 음성은 22%(분당 54.5→42.3원), 데이터는 48%(분당 21.6→11.2원) 내리기로 했다. LTE 유심(범용가입자인증모듈) 이동성을 보장하고 단말기 공동 조달 체계를 구축해 알뜰폰 사용자가 살 수 있는 단말기도 확대해 갈 방침이다.

통신비의 가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비자의 선택권도 강화한다.

이달 안에 SK텔레콤이 음성과 데이터 소비 패턴에 따라 제공량을 선택하는 LTE 선택형 요금제를 출시한다. KT와 LG유플러스도 선택형 요금제를 준비 중이다. 이 요금제가 도입되면 음성을 많이 쓰는 사용자는 월 약 1만5000원, 데이터를 많이 쓰는 가입자는 약 1만7000원 가량의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가입비를 올해 3분기에 40%, 2014년 30%, 2015년 30%를 낮춰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아울러 이동시장 과열의 원인이 되는 과다 보조금을 억제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상한액 등을 올리고 이동통신사가 이용자의 가입 유형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 지급하는 보조금과 고가 요금제 의무 가입은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이동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로 이동통신사들은 서비스와 요금에서 제조사들은 단말기 가격에서 경쟁이 일어날 것"이라며 "특히 알뜰폰 사용자도 음성 무제한 요금제나 LTE를 이용할 수 있어 요금 인하 효과는 더욱 커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최규술기자 kyusul@metroseoul.co.kr

김연아 가장 시장성 뛰어난 스포츠 스타 44위 14일 서울 성북구 정릉동 북한산 청병교육센터 행사장에서 열린 대한빙상경기연맹 대표선수단 워크숍에서 김연아를 비롯한 선수들이 손을 번쩍 들고 스트레칭을 하고 있다. 김연아는 이날 영국 스포츠 전문 매체 스포츠프로와 유로스포츠가 공동으로 조사한 시장성 순위에서 44위에 올랐다. 1위는 브라질의 축구선수 네이마르 다 실바가 차지했다. /연합뉴스

"한푼이라도 더 벌 수 있다면…" 중장기투자 외화예금 관심 후끈

#한 상장사의 그룹홍보팀에서 근무하는 박모(52) 부장은 최근 외환은행에 1만 달러를 예치시켰다. 박 부장은 "미국 유학을 가 있는 딸에게 정기적으로 송금하다 보니 달러가 더 오르기 전에 조금씩 사두는 것이 나은데, 우대금리 상품이 나와 바로 가입했다"고 말했다.

금융가에서 외화예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엔저와 원화·미달러 강세가 지속되면서 여행, 유학 등 해외에 나가는 이들을 중심으로 외국환 보유가 중장기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또 개인투자자들도 국내 주식시장 침체와 저금리 환경 속에서 분산 투자 관점으로 외환을 다시 보는 중이다.

시중은행들도 외화예금 붐(?)으로 재미를 보고 있다.

14일 외환은행은 지난 주말 출시한 외화공동구매정기예금(13-2차)의 시판이 순항 중이라고 밝혔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실적 집계는 못 했다"면서도 "두 번째 상품인데 잘 팔리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사전에 성공했던 외화공동구매정기예금(13-1차)의 실적을 넘어설 것이란 기대다. 13-1차 상품은 340여 계좌에 1700만 달러의 가입 실적을 올렸다.

이 관계자는 "해외여행 및 유학자금을 송금할 개인들의 분들 때문이라고 보면 된다"며 "이율은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환리스크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은행은 엔화 변동성에 투자하는 '우리 챔프 복합예금(원/엔)' 상품을 2월 출시한 데 이어 3, 4월에도 연이어 내놓았다. 엔화 환율에 투자해 최고 연 7% 수익률이 가능한 환율연계예금으로 호응이 늘었기 때문이다.

한재형 상품개발부 차장은 "2월 출시 상품만 100계좌 이상 팔렸다"며 "코스피와 반대로 가는 엔화에 대한 투자는 환헷지의 여력이 있고, 원금까지 보장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흐름에서 국내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4월 말 기준 348억4000만 달러로 전달에 비해 12억 달러나 늘었다. 박혁진 한국은행 국제국 자본이동분석팀 과장은 "개인 예금도 늘었다"며 "자금 수요 증가 때문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가영기자 lazyhand@

400년만에 끝난 '위패 싸움'

퇴계 이황 중앙에 '좌 서애·우 학봉' 서열 정리

위패 서열을 놓고 400년 가까이 시비를 벌여온 문중간의 싸움이 완전히 해결됐다.

경북 안동시 풍곡면 소재 호계서원(당시 여강서원) 이씨의 복설추진위원장은 14일 "1620년부터 시작된 병호시비(병산서원과 호계서원간의 시비)가 종지부를 찍었다"고 밝혔다.

병호시비는 조선 중기 학자 학봉 김성일(1538~93)과 서애 류성룡(1542~1607)의 위패 서열을 놓고 양측 문중과 후학들 간에 벌여온 영남 유림의 대표적 논쟁이다.

1573년 건립된 여강서원에는 학봉의 위패가 봉안된 뒤 1620년 서애 위패를 모시면서 누구의 위패를 퇴계 이황의 왼쪽에 둘 것이냐를 놓고 393년간 싸움을 벌여왔다.

벼슬의 높낮이로 서열을 정해야 한다며 영의정을 지낸 서애의 좌배향을 주장하는 측과 나이가 많고 학식이 더 뛰어난 학봉 좌배향론이 팽팽히 맞서왔다.

이후 1812년 학봉파 사이에서 호계서원에 대산 이상정의 위패를 추가로 모시자는 주장이 제기되자 서애파는 반발하며 호계서원과 절연했다.

흥선대원군이 나서 양측을 중재하려다 실패하자 호계서원은 훼철됐다. 결국 각 문중은 퇴계의 왼쪽에는 서애의 위패를, 오른쪽에는 학봉의 위패를 봉안하는 내용의 호계서원 복설 결의문을 15일 채택하기로 했다. /배동호기자

9월부터 지정되지 않은 PC서 금융거래땐

문자·유선전화 두차례 인증

9월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인터넷 뱅킹으로 돈을 이체할 때 본인 확인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신청자 중심으로 시범 시행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9월 26일부터 모든 이용자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서비스 적용대상은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전자자금이체 서비스를 하는 모든 금융회사로 은행, 증권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이 포함된다.

시행안에 따르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거나 인터넷뱅킹으로 1일 누적 기준 300만원 이상 이체하는 고객은 본인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미리 지정하지 않은 컴퓨터나 스마트폰 단말기로 금융 거래를 하려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인증 또는 유선전화를 통한 인증 추가 본인확인(두채널 인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

현재까지는 어떤 컴퓨터에서든 보안카드나 일회용 비밀번호(OTP)만 있으면 자금이체와 공인인증서 재발급이 가능했다.

다만 유효기간 연에 공인인증서를 갱신하는 경우나 300만원 미만의 금액을 이체하는 경우는 본인확인 절차가 기존과 같다. /정윤희기자 unique@

아름다운 세족식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14일 수원시 팔달구 장안로 영복여자중학교에서 학생들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선생님들의 발을 씻어드리는 세족식을 열자 선생님들도 고마움을 담아 학생들의 발을 씻어주고 있다. /연합뉴스

커지는 '윤창중 그날밤'

호텔방서도 인턴 엉덩이 성추행 의혹…사실땐 美 강제소환될 수도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이 호텔 방 안에서도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윤 전 대변인은 죄질이 예상보다 높아져 미국으로 강제 소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이 14일 공개한 미국 연방법에 따르면 윤 전 대변인이 호텔 방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알몸인 채로 인턴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행동을 했다면 피해 여성은 성폭행 위협을 느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연방법상 성범죄(총 5단계) 중 4단계에 해당한다. 실질적인 폭행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합리적인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했다면 범죄로 분류한다.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만 달러 이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한다.

애초 윤 전 대변인이 주장했던 문화적 차이에 의한 경범죄 성추행(5단계·6개월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달러 이하 벌금형)과는 차이가 크다.

윤 전 대변인이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엉덩이가 아닌 허리를 한번 툭 쳤다"는 해명이 사실일 경우 성추행 혐의를 벗을 수도 있다. 연방법은 성적 접촉 부위로 사타구니, 가슴, 넓적다리, 엉덩이 등을 규정한 반면 허리는 제외했다.

윤 전 대변인의 한국행과 관련해 수사 회피 목적이 확인되면 사법방해죄 혐의(3년 이상 30년 미만 징역형 또는 1만 달러 미만 벌금형)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가 같은 목적으로 윤 전 대변인에게 한국행을 지시했다면 사법방해죄 적용 대상이 된다.

한편 윤 전 대변인 가족과 면담을 한 변호사는 "윤 전 대변인이 미국에 현지에서 조사를 받는 게 좋겠다"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리기자 grass100@metroseoul.co.kr

"여대생 등 5명 김학의 성접대" TV조선 보도

성접대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모씨가 1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2차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들 최음제 중독 가능성

유력 인사 성접대 의혹 사건에 30여 명의 여성이 동원됐으며 이들은 약물 복용과 성적 학대 등을 당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14일 TV조선은 "경찰이 성관계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들의 신원을 특정했고 이들을 포함해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 30여 명에 대한 진술 조사를 모두 마쳤다"고 보도했다.

특히 "여대생을 포함한 5명의 여성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성접대한 것으로 진술했으며 다른 여대생 2명은 한 대기업 고위 임원의 성접대에 동원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동원된 여성들은 건설업자 윤모(52)씨에게 성관계 영상 등 약점을 잡혀 성접대에 동원된 것으로 진술했다"고 전했다.

또 이들이 윤씨의 원주 소재 별장의 노래방이 마련된 F동 건물에 판 가면 통제 불능의 정신 상태에서 성관계를 갖게 됐다고 밝혀 최음제 등 약물 중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배동호기자 slowdev@

강원랜드 직원 "키스하면 채용해줄게" 성희롱 문자

강원랜드의 한 직원이 아르바이트생에게 일시직 채용을 대가로 성희롱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14일 강원랜드에 따르면 직원 A씨는 여성 아르바이트생 B씨에게 채용을 대가로 키스해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2주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61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에게 자중할 것을 요청했지만 A씨의 행동은 계속 이어졌다. 강원랜드 감사팀 관계자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사회적 약자를 괴롭힌 것으로 상당히 계획적·의도적이었으며 죄질이 불량해 징계위에 회부했다"고 전했다. /배동호기자

뉴스&뉴스

건강보험증 빌리거나 빌려주면 1년 이하 징역

● 앞으로 건강보험증을 빌려주거나 빌려서 보험급여를 받다 적발되면 형사 처벌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양도·도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1000만원에 처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과태료를 물게 돼 있었지만 이번에 처벌 수위가 강화됐다. /배동호기자

제주서 살인 진드기 감염 의심환자 첫 발생

● 국내에서 이른바 '살인 진드기'로부터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처음으로 발생했다. 국립보건원은 제주 서귀포 지역에서 과수원과 축산업을 하는 강모(73)씨가 작은소참진드기에 의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SFTS)' 감염이 의심돼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배동호기자

공기업 신입사원 남성이 여성보다 3배 많아

● 30개 공기업이 지난해 뽑은 신입 사원의 성별을 따져보면 남성이 여성의 3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공시를 14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신입사원 4270명 중 남성은 3201명, 여성은 1069명이었다. 대한석탄공사와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남성만 뽑았다. /배동호기자

뉴스 & 뉴스

케이블TV 등 본방 1주일 지나도 무료 VOD 못봐

● 7월부터 본방 사수(지상파 프로그램을 본 방송 시간에 시청하는 것)에 실패한 프로그램은 최소 3주를 기다려야 무료로 볼 수 있을 전망이다.
14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지상파 3사는 최근 IPTV와 케이블TV 사업자에 유료 방송의 홀드백 기간을 7월 1일부터 현행 1주에서 3주로 변경하는 안을 제안했다.
홀드백 기간은 본 방송 이후 유료 방송 플랫폼에서 무료 VOD로 재방송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다.
홀드백 기간 동안 건당 1000원 이용료를 지불하거나 정액제 상품에 가입해야 해당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다.
IPTV 업계 관계자는 "슈퍼갑인 지상파 방송사의 홀드백 기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주리기자 grass100@

전봉준 묘역 일본식 석등 철거
14일 전북 정읍 이평면 창동리 녹두장군 전봉준 묘역에 세워져 논란이 일었던 일본식 석등이 철거되고 있다. /뉴시스

남자는 "외로워서" 여자는 "안정위해서" 결혼

● 결혼하는 현실적인 이유에 대해 남성은 '외로움', 여성은 '안정성'을 꼽았다.
결혼정보회사 더원노블 행복출발은 지난 4일부터 10일간 미혼 남녀 8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남성은 외로움(32.7%)을, 여성은 안정성(28.9%)을 결혼하는 가장 큰 이유로 선택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유리기자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박상철

듀폰사 나일론 스타킹 최초 판매
1940년 5월 15일 아침, 실크보다 질기고 면보다 가벼우며 신축성이 뛰어난 나일론 스타킹이 미국 전역의 백화점에서 판매되기 시작했다. 나일론 스타킹은 기존 실크 스타킹보다 2배나 비싼 1.15~1.35달러에 판매됐지만 첫날에만 500만 켤레가 팔려나갔다. 그러나 최초의 인조섬유 나일론을 개발한 월리스 흄 캐러더스 박사는 이미 3년 전에 청산칼리를 먹고 자살해 이러한 성공을 볼 수 없었다.

한채에 11억… 분당선 따라 아파트값 달린다

역세권 노선중 가장 비싸

서울 시내 지하철 역세권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비싼 노선은 분당선으로 나타났다.
1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역에서 500m 이내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의 평균 집값을 분석한 결과 분당선 인근이 10억9372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분당선은 경기 동남부와 서울 왕십리를 잇는 노선으로 강남 개포·대치·도곡 압구정동 등을 지나간다.
이어 ▲3호선 8억2564만원 ▲9호선 7억2314만원 ▲중앙선 6억4348만원 ▲5호선 6억3107만원 ▲2호선 6억2631만원 ▲7호선 5억4829만원 ▲8호선 4억9567만원 ▲4호선 4억9197만원 ▲6호선 4억5744만원 ▲1호선 3억7095만원 순이었다.
집값이 가장 저렴한 1호선은 경기 서남부와 서울 도심 동북부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구로·금천·강서·도봉·노원·강북구 등을 통과한다.
개별 역별로는 분당선 구룡역의 역세권 아파트값이 16억9091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2위는 3호선 압구정역(16억8035만원), 3위는 9호선 신반포역(15억3423만원)이다.
한편 인근 집값이 비싼 지하철 노선은 다른 노선에 비해 이용객 수도 적었다. 지난해 분당선과 9호선의 하루 평균 승하차 건수는 각각 6만1113건과 6만6982건으로 1호선(43만9316건)의 7분의 1 수준으로 조사됐다. /김민현기자

숫돌이 동자승 부처님오신날을 사흘 앞둔 14일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열린 제2회 동자승 축구대회에서 동자승들이 공을 다투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겨우 0.3%

부산시와 부산지역 16개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원의 무기계약 전환은 불과 0.3%에 그칠 정도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합진보당 부산기초의원단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부산본부가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근거로 14일 밝힌 부산지역 자치제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2012년 기준 2892명(단시간 근로자 193명 제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직원은 부산시와 16개 구·군을 모두 합쳐 10명에 불과 전환율은 0.34%에 그쳤다.

특히 보건의료서비스 종사자(방문간호사 등)의 무기계약 전환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 '보호자 없는 병원' 부산 온 종합병원 선정돼

부산 온 종합병원이 정부가 추진하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의 시범사업 병원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병원은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간호 인력을 확충하고 팀 간호체계를 도입한다.

또 병동환경 개선 등을 통해 보호자가 없어도 안심할 수 있는 병동운영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호자 없는 병원'은 간병인이 아닌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팀을 이뤄 간호 및 간병 서비스를 모두 제공한다.

따라서 사적 고용 간병인이나 보호자는 병실 내 상주하는 것이 제한된다.

전통성년례 재현행사 20일

부산시 여성문화회관은 올해 제41회 성년의 날을 맞아 오는 20일 전통성년례 재현 행사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오후 2시 여성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올해 20세가 되는 남녀40명 등을 비롯해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성년례에 앞서 성년자들은 전통관례복장을 갖추고 성년례의 의미, 한복 입는 법, 절하는 법 등 예절 교육을 받는다.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용산구 소월로 2가 1-141 142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 편집인	남궁호
서울 편집인	김 종 학
편 집 국 장	조 민 호
부산지사장 겸 대표	김 종 훈
서울광고문의	02)721-9851 3
부산광고문의	051)959-2100
독 자 센 터	02)721-9862

2000년 5월 31일 창간 등록번호 ...

'유치환 우체통' 오늘 문연다

문학 정신·업적 기리기 위해 산복도로에 건립…개막 특별전 열려

청마 유치환 선생의 문학 정신과 업적을 기리는 부산 동구 산복도로의 유치환 우체통(사진)이 15일 오후 2시30분 문을 연다.

부산시가 그의 문학적 업적과 예술성을 기리기 위해 산복도로 르네상스 1차 선도 사업(망주 초량 지역)으로 5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10월부터 동구 산복도로에 유치환 우체통 건립을 추진한 것.

유치환 우체통은 산복도로를 한 눈에 조망하는 안내센터이자 문화 커뮤니티 공간 역할을 하게 된다.

부산 동구 망양로 580번길 21(초량동)에 전체면적 180㎡,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된 우체통 건물 1층은 야외 공연장인 커뮤니티 마당으로 꾸며졌다. 시인의 방인 2층은 청마 선생 관련 자료 전시, 영상물 상영, 편지 쓰기, 소규모 강연 공간으로 활용된다.

이와 함께 옥상에는 북항과 영도 등 부산 앞바다의 절경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하늘 전망대가 들어섰다.

또 추억과 그리움이 있는 옛길 우체통이 설치됐으며 이 우체통에 편지를 넣으면 6개월 뒤 수취인에게 배달해준다.

특히 5월 15일 스승의 날에 문을 여는 우체통 2층 시인의 방에서는 개막 특별전으로 청마의 시와 소박하면서도 깊고 순수한 김봉진 화로 화백의 작품들이 어우러진 전시회가 열린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동시대를 살았던 문학과 미술 두 거장이 전하고자 했던 의미와 자연을 소재로 한 순수한 작품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다.

한편 부산시는 이곳에서 '청마 음악회', 청마 영하게 미술교실, 노인 자서전 쓰기, 인문학 강좌 등 다양한 공연·전시·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다.

/김수미기자 kam@metrobusan.co.kr

붐비는 채용박람회장 14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부산광역권 채용박람회'를 찾은 청년 구직자들이 응시신청서 및 이력서 등을 작성하고 있다. 이날 채용박람회에는 280여 곳의 우량 중견기업이 참가해 기업별 부스를 운영하면서 현장 채용면접을 통해 2000여 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뉴시스

5·18 기념행사 '다채'

5·18 민주항쟁 33주년을 맞아 부산지역에서도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린다.

부산에서는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청춘민도 등 7개 시민사회단체들이 '5·18기념사업부산협의회'를 구성해 '5·18 in 부산'이라는 이름으로 다채로운 기념 행사를 마련한다.

우선 영화 '지슬', '오월애' 등 민주화운동을 다룬 영화를 부산지역 6개 대학과 6개 마을에서 5월 한 달 동안 상영하는 '5·18 찾아가는 영화제 예스터데이(Yesterday)'를 개최한다.

또 5·18 민주항쟁의 이해를 위한 참여연극 '5·18 그날과 오늘 호미'가 5월부터 두달 동안 교사와 청소년,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부산지역 청년단체와 민주동문회는 오는 17일부터 1박2일로 광주 순례를 가고, 청소년들은 25일부터 양일간 '5·18청소년역사캠프'를 간다.

또 부산역과 각 대학에서 5·18 민주항쟁 기념 기획전시가 열린다.

이외에도 18일 SNS를 통해 '오월 짤'로 상황시를 지어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fb.com/busanminju)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리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수과원 민·관 해파리모니터링체제 가동

국립수산과학원은 이달부터 민관 해파리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한다고 14일 밝혔다.

수과원 해파리대책반은 어민 294명, 지자체 공무원 67명, 수산과학원 연구원 60명 등 총 421명이 참여하는 민·관 해파리모니터링 체제를 2006년부터 운영 중이다.

모니터링 요원들은 5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연안의 해파리 출현을 감시하며 관련 정보를 수산과학원 해파리대책반에 제공한다.

해파리대책반은 이를 분석한 종합 정보를 매주 목요일마다 어민, 일반 국민, 지자체 및 관련 단체에 다양한 매체로 제공한다.

주요 모니터링 대상 해파리는 총 7종으로 ▲내광 출현 해파리 2종(노무라입깃해파리, 보름달물해파리) ▲맹독성 해파리 5종(작은부레관해파리, 라스톤입방해파리, 유령해파리, 커튼원양해파리, 야광원양해파리) 등이다.

수산과학원의 민·관 해파리 모니터링은 일반인의 참여도 가능하다. 관련 모니터링의 결과는 홈페이지(www.nfrdi.re.kr)를 통해 공개된다.

상하이 국제청소년 우정캠프 26일까지 참가자 모집합니다

부산국제교류재단은 7월 17일부터 27일까지(10박11일) 중국 상하이시 일원에서 열리는 '2013 상하이 국제청소년 우정캠프' 참가자를 14일부터 2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하이시 인민대외우호협회 및 청년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우정캠프는 한국·호주·독일·영국·일본·베트남 등 14개국 80여 명의 청소년들이 모여 포럼개최, 중국전통문화체험, 홈스테이, 시내투어 등을 통해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게 된다.

이들은 중국어 및 중국 노래·무술공연·서예 배우기와 동방명주탑 참관, 중국미식체험, 호스트패밀리와 미팅 및 홈스테이 등을 하면서 중국자수 배우기 등을 체험하게 된다.

재단은 이번 캠프에 참가해 한국문화를 소개하고 부산을 알리는 활동을 할 고등학생 7명 및 인솔교사 1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참가비는 105만원이고 참가 신청은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부산지역 고등학생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문의 051)668-7915

부산銀 안동공단지점 오픈

부산은행은 14일 경남 김해시 어방동에 김해지역 12번째 점포인 안동공단지점을 개점했다.

이번에 개점하는 안동공단지점은 240㎡ 공간에 365일 자동화 코너와 각종 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안동공단지점은 여신, 외환 등 인근 기업에 필요한 업무를 중심으로 전문지식을 갖춘 직원을 배치해 기업특화점포로 운영된다.

부산은행은 이번 안동공단지점 개점으로 김해지역 12개 점을 포함해 울산·경남지역에 모두 41개 점포를 운영하게 됐다.

중기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의 모든 것

Q 중소기업 사업주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중소기업의 사업주는 사업장의 사업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임의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이거나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중 관련 법에 의거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화물자동차 운송사업·건설기계사업을 하는 사람, 퀵서비스업자, 예술인은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신청을 하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가입 시 가입자가 선택하는 기준 보수(1~10등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입 신청 관련 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 제공

"북극 항로 준비 서둘러야"

박창호 재능대 교수 '부산의 미래' 워크숍서 주장 "환적항 개발도 필요"

지구온난화 현상의 가속화로 2030년께 북극해 항로가 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창호 재능대 유통물류학 교수는 14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열린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부산의 미래' 워크숍에서 "북극해 항로가 열리면 글로벌 물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뀔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정책적으로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극해 항로는 북극에 얼어있던 빙하가 녹으면서 생긴 바닷길로 지구상 항해 최단거리 항로를 말한다.

이 항로가 열리면 부산항은 싱가포르·홍콩·상하이항보다 지리적 접근이 뛰어나 현행 항로보다 운항 거리는 37%, 운항 일수는 33% 단축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있다.

부산항에서 로테르담항까지 항해한다고 했을 때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기존 항로를 이용하면 거리로는 2만100㎞, 기간은 24일 걸렸지만 북극해를 통과하면 거리가 1만2700㎞로 줄고 운항 기간도 14일로 짧아진다.

박 교수는 "북극해 항로는 극동과 서유럽을 연결하는 가장 짧은 뱃길"이라며 "북극권은 대규모 천연자원이 매장돼 있고 북극해와 주변 어장은 전 세계 어획고의 37%를 차지하는 주요 어장이어서 북극해 항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는 북극해 항로에 대비한 환적항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렴한 하역료, 빠른 하역 서비스 등 우리나라 항만의 장점을 살려 북극해 항로를 오가는 화물의 환적항 역할을 할 항만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국제선급과 러시아 선급의 기준을 충족하고 북극해를 운항할 수 있는 선박과 운항 인력 확보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박 교수는 덧붙였다. 박 교수는 "부산항을 거점으로 하는 북극해 항로 플랫폼을 만들고 북극해에서 가장 긴 해안선을 보유한 러시아와의 협력도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울산대공원 앵무새 천국 울산대공원이 새 단장을 하고 있다. 14일 울산대공원 게라실에 있는 앵무새들이 새로 넓히는 앵무새 전원에 가려고 서로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나무 주방용품 쓰세요 신세계 센텀시티 7층 콕회에서 여성들이 대나무로 만든 주방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대나무는 항균성이 뛰어나 곰팡이가 생기지 않고 건조가 빠른데 음식물이 잘 스며들지 않는다. /연합뉴스

역사 숨쉬는 인문학 만나볼까

남구 프로그램 참가자 접수

부산 남구는 올해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남구 인문학과 함께 만나다' 프로그램을 내달 2일과 6일 2회에 걸쳐 운영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인문학 특강은 부산스토리텔링협의회와 부산문화연구회 주관으로 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신선대에서 문학을 만나다', 6일 같은 시간 '이기대에서 철학을 만나다'를 주제로 열린다.

'신선대에서 문학을 만나다' 프로그램은 동명대학교를 출발해 동명불원, 봉우리산, 신선대를 거쳐 배편을 이용해 오륙도의 등대와 박물관을 투어하는 코스로 진행된다.

이어 6일 '이기대에서 철학을 만나다' 프로그램은 이기대(용호종합사회복지관~동생말~어울마당, 작은음악회)와 오륙도 선착장 걷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설가 김하기씨와 송영봉 화백이 함께 걸으며 이기대 전설 이야기와 오륙도 그림 이야기 등을 들려주고 남구의 역사와 문화를 답방하는 인문학 코스다.

이 프로그램은 남구 거주 주민 등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오는 20일부터 전화 접수를 한다. 문의 051)441-0485

대선주조 담금주용 제품 생산

부산 향토기업 BN그룹 대선주조(주)는 담금주 계절을 맞아 담금주 소비층을 겨냥한 다양한 판매 전략을 내놓았다고 14일 밝혔다.

대선주조는 담금주 병에 직접 과일을 넣어 숙성시키고 싶다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담금주 제품의 병 입구를 크게 넓힌 광구(廣口)형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로써 소비자들은 담금주를 사서 별도의 용기에 술을 다시 부은 뒤 과일주를 담그는 일변을 겪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는 시판 중인 담금주 병의 목 입구가 좁아 담금주 병에 과일을 넣을 수 없었다.

이와 함께 담금주 병에 매실주와 포도주를 가장 맛있게 담그는 방법을 인쇄해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또 담금주 병에 손잡이를 달아 구매 고객이 쉽게 들고 다닐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홈플러스는 대선주조의 담금주 구매 고객에게 구매 금액의 10%를 패밀리카드 포인트로 적립해준다.

위안부 망언 日하시모토 이번엔 미군에 매춘권유

하시모토 도루 일본유신회 공동대표가 위안부 발언에 이어 주일미군사령관에게 매춘을 권유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14일 하시모토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미군이 일본의 풍속업소를 이용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며 "인간에게 특히 남자에게 성욕을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하시모토 대표는 이달 초 오키나와의 미군 후텐마 기지를 방문했을 때 주일미군사령관에게 "매춘이 가능한 풍속업소를 활용해 달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한 위안부 발언에 대해서도 "위안부가 된 분은 안됐지만 그것이 전쟁의 비극"이라며 소신을 재확인했다. 하시모토 대표는 전날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기강을 유지하기 위해 종군위안부 제도가 필요했다"고 망언을 늘어놨다.

하시모토 대표의 발언이 연일 논란을 빚자 이날 일본 정부는 적극적으로 선긋기에 나섰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야당 대표의 발언이기에 정부 입장에서 코멘트할 일은 아니다"고 전제한 뒤 하시모토의 발언이

한국·미국 등과의 외교에 영향을 줄 가능성에 대해 "정부 입장을 외교 통로를 통해 열심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각료들도 하시모토 대표의 발언을 일제히 비판했다.

시모무라 하쿠분 문부과학상은 "당을 대표하는 사람의 발언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전 세계가 아베 총리의 과거사 발언을 오해하는 가운데 (하시모토의 발언은) 타이밍이 매우 좋지 않다"고 난색을 표했다. 그는 이어 하시모토 대표의 주일미군 풍속업 이용 발언에 대해 "거짓말 아저씨가 아니지 않나. 좀 더 (자신의 위치를) 인식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佛 스마트폰에 '문화세'

프랑스 정부가 스마트폰에 '문화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음악·영화 등 프랑스의 문화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 기반 전자기기에 최대 4%의 문화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만일 인터넷 기반 전자기기에 대해 1%의 세금만 부과해도 연간 8600만 유로(약 1200억원)에 달하는 세수가 확보된다.

/조선미기자

미드 '브레이킹 배드' 주인공 브라이언 크랜스톤 단독 인터뷰

"악마 꿈틀대면 달리죠"

metro USA

평범한 40대 화학 교사가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뒤 마약상으로 변하는 이야기를 담은 미드(미국 드라마) '브레이킹 배드'. 지난달 '브레이킹 배드' 시즌 3가 선댄스 채널을 통해 한국에서 독점 방영되면서 국내 시청자들의 호응이 뜨겁다. 시즌 3에서 주인공 월터 화이트는 보통 아버지와 마약상 하이젠버그의 삶을 오가며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다. 월터 역을 맡고 있는 배우 브라이언 크랜스톤(사진)을 메트로 인터내셔널이 최근 촬영장에서 만났다.

-월터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 그게 중요한가? '브레이킹 배드'는 다른 텔레비전 시리즈들과 다르다. 주인공을 선과 악의 캐릭터로 보는 것은 주관적인 잣대일 뿐이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주인공의 이야기에 얼마만큼 공감할 수 있느냐다.

-'헤어스타일 전략'이 있다고 들었다.

▲ 시즌이 끝나면 항상 머리와 수염을 기른다. 다음 작업 일정이 정해지면 캐릭터에 맞춰 헤어스타일을 만든다. 작품을 연달아 찍을 경우엔 가발을 쓰기도 한다. 장발과 단발을 자유자재로 오갈 수 있는 전략이라고나 할까.

-스트레스 해소법은.

▲ 명상을 하거나 조용한 휴식을 통해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들도 있지만 난 달리기가 적성에 맞는 것 같다. 한바탕 뛰고 나면 몸이 개운하다. 공격적인 성향도 사라지고 근심 걱정도 덜 수 있다. 눈치 빠른 아내는 내 기분이 안 좋아 보일 때면 나가서 한 바퀴 뛰고 오라고 한다.

- 월터 역할을 하면서 실제로도 바뀐 점이 있나.

▲ 목소리 톤이 낮아졌고 자세도 좀 바뀐 것 같다. 몸을 구부리는 연구원 자세를 많이 취하는 것 같다.

- 모든 인간의 마음속엔 악마가 있을까.

▲ 어떤 사람이든 자신이 처한 환경이나 사정에 따라 악마가 될 수 있다. 하이젠버그 같은 마약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주위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듯 주변의 영향을 받으면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실수와 후회를 반복하고 반성하면서 발전하는 게 인간 아닌가.

/네드 에르hardt 기자 정리=조선미기자

metro Russia

모스크바 도심 차 몰아낸 '자전거 행렬'

최근 '2013 자전거 거리' 행사를 위해 모스크바 시내 한 도로의 자동차 운행이 전면 중지됐다. 자전거 애호가들은 텅 빈 도로에 집결하며 아찔한 자전거 묘기를 선보였다.

행사 주최 측은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행사를 기획했다"면서 "모스크바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자전거전용도로 등의 시설을 구축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는 자전거 경주대회, 자전거 역사 강의 등 풍성한 이벤트가 마련됐고 최신형 자전거 모델도 소개됐다.

자전거 경주 참가자 따찌야나는 폭풍 질주를 마친 뒤 "모스크바에는 자전거를 마음껏 탈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안전하게 자전거를 세울 수 있는 자전거 보관소도 필요하다"고 하소연했다.

이런 장애 요소가 있지만 '2013 자전거거리' 참가자들은 머지않아 모스크바도 자전거 운전자를 위한 도시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리야 이자사로바 기자 정리=조선미기자

앤젤리나 졸리 "양쪽 유방 절제"

"암 막으려 석달전 수술"

할리우드 톱스타 앤젤리나 졸리가 유방암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유방 절제술을 받은 사실을 고백했다.

졸리는 14일 뉴욕타임스에 실린 '내 의학적 선택'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유전적으로 유방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BRCA1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예방적인 차원에서 양쪽 유방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면서 "수술을 포함해 3개월에 걸친 치료를 지난달 27일 마쳤다"고 밝혔다.

그는 "의사는 내가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87%, 난소암에 걸릴 확률이 50%라고 추정했다"면서 "이번 수술로 유방암에 걸릴 확률은 5%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졸리의 어머니인 배우 마르셀린 버트랜드도 난소암에 걸려 2007년 57세로 사망했다.

/박선영기자 tak0427@

L
업계 최저 금리
오토할부
H
업계 최고 적립
오토캐시백
더 싸게 살 것인가
더 많이 받을 것인가
롯데카드만의 강력한 CAR:DISCOUNT

내 인생성적표는 'BBBB 아닌 AFAF'

'고졸신화의 아이콘' 윤생진 창조경영연구소 대표의 성공스토리

'고졸 신화'. 학벌이 사회적 성공과 출세를 보장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아직 이 같은 용어가 유효하다. 최근 불어닥친 '고졸 채용'의 바람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고졸이라는 극심한 차별을 이겨내 '직장인의 꿈'을 이룬 사례가 아직 극소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뜻이 있으면 길은 있는 법. 한국표준협회가 고졸 출신으로 대기업 전무 자리에 올라 고졸 신화 아이콘으로 불리는 윤생진(사진) 대표의 강연회를 마련해 젊은이들의 꿈에 희망을 보탠다. 전국 5개 지역에서 열리는 이번 강연회는 표준협회 홈페이지(www.ksa.or.kr)를 통해 신청 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메트로신문은 강연회에 앞서 윤 대표의 성공 스토리를 살펴본다.

홀대받던 생산 기능직 하루 4시간 쪽잠 자며 2000개 넘는 제안 올려

아내 커피타는 과정서 1500억짜리 혁신 발견

남 아닌 내가 잘하는것 그분야 최고되면 '리더'

"제 꿈은 이 회사에서 부장이 되는 것입니다."

생산 기능직으로 입사한 27세 청년 윤생진의 대답에 돌아온 것은 조롱 섞인 핀잔뿐이었다. 심한 놀림을 받은 신참은 그날 집에 있는 거울 앞에 '윤생진 부장'이라고 커다랗게 써 붙였다. 윤 창조경영연구소 대표의 고졸 신화는 이 날부터 시작됐다.

일주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한 윤 대표의 결론은 '인생을 바꾸자'였다. '대졸 사원이 할 수 없는 분야에서 최고가 되자'는 생각으로 현장의 제안왕이 되기로 결심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현장에 근무하는 사원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제안서를 함께 만들어 첨부하곤 했다. 윤 대표는 바로 이 제안서에 승부를 걸기로 했다.

먼저 간부들의 눈에 띄기 위해 제안서를 영어와 한문을 섞어 작성했다. 대졸 사원에게 없는 현장 능력을 자신만의 강점으로 내세우기 위해 모든 공정을 연구하며 파고들었다. 잠은 하루 4시간 이상 자지 않았으며 시간이 아까워 밥을 먹으면서도 제안서를 썼다. 이렇게 해서 1983년 1800건의 제안서를 올렸다. 보통 현장 사원이 제안하는 건수가 일 년에 서너 건임을 감안하면 엄청난 숫자다. 결국 1985년에는 2000건 이상을 써내며 '제안왕'으로 등극했다.

성공 가도를 달릴 것 같았던 윤 대표는 곧 좌절을 맛봤다. 올려지는 제안 중 70%는 버려진 것.

그럴 때마다 윤 대표는 스스로 '3할대 타자'라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런 윤 대표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다. 당시 타이어를 만드는 과정 중 한 제품을 만드는 기계에 쓰인 윤활유를 만드는 절차가 있었다. 유약을 먼저 넣은 뒤 분말을 집어넣어 저으며 섞어 윤활유를 만들었는데 잘 섞이지 않고 분말이 넘쳐 한 통 섞는 데 족히 30분은 걸렸다. '커'피 골인원이 되새기던 윤 대표는 집에서 부인이 커피 타는 것에 착안, 분말을 먼저 넣고 유약을 섞는 방식으로 공정을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간단한 제안이었지만 효과는 놀라웠다. 작업 시간은 반으로 줄었고 150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했다.

윤 대표는 공장 생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관리직으로 발탁, 주임이 됐다. 고졸은 주임이 될 수 없다는 불문율을 윤 대표가 깬 셈이다. 대졸 사원은 주임이 되기까지 3년이 걸리지만 윤 대표는 12년이 걸렸다.

◆ 나는 AFAF 인생을 원한다

윤 대표는 "어떤 한 분야에서라도 최고가 되는 사람이 결국 이 세상의 리더가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는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처럼 따라 하려 하지 않고, 잘하는 것은 누구도 따라 할 수 없을 만큼 노력을 한다.

다시 말하면 BBB 인생을 원하지 않는다. AFAF인생을 원한다. 즉 모든 과목에서 B의 성적을 내며 남들과 비슷하게 하는 것보다 못하는 과목에서는 F를 받아도 잘할 수 있는 과목에서는 A를 받는 것이 낫다는 말이다.

이런 노력으로 두 번의 2계급 특진 끝에 6년 만에 대리에서 상무자리에 올랐다. 윤 대표는 금호그룹에 몸담은 32년간 7번의 특진을 기록했고 3년을 회장 부속실에서 보낸 후 전무로 퇴임했다.

윤 대표는 60이 넘은 나이에도 새로운 에너지, 대체에너지를 개발해서 이 세상을 긴장시키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연구와 노력을 하고 있다.

윤 대표는 "조직은 약속하지만 책임지지 않는다"며 "미치게 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 표준협회 주최 윤생진 대표 전국 순회강연 일정

일정	강연시간	장소
22일	14:00~17:00	경기 중소기업지원센터 광교홀 1층
27일	14:00~17:00	대전 경제통상진흥원 1층
29일	14:00~17:00	인천 송도비즈니스센터 5층
6월 11일	14:00~17:00	대구 그랜드호텔 다이너스티 B홀
6월 12일	14:00~17:00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노령층 의료비 "AIG에 부~탁해요"

50~75세 가입 가능한 '명품부모님보험' 눈길

노인 의료비가 급증하고 스스로 생계를 해결해야 할 노인의 수가 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노년 의료비는 2010년 약 13조원으로 10년 전에 비해 6배 이상 증가했다.

이 중 75세 이상의 노인 의료비는 5조4541억원으로 40%를 차지한다. 또 노인 인구의 절반 이상이 본인 혹은 배우자의 경제활동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다.

이같은 현실에서 건강 문제로 스스로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노인들은 소소한 병원비도 큰 부담이 된다.

병원비 걱정으로 작은 병을 방치하다 큰 병으로 악화될 경우 의료비가 큰 폭으로 늘어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따라서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가입은 이젠 노년층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다.

AIG손해보험의 '명품부모님보험'은 노년층을 위한 노년 전문 보험으로 출시돼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상품은 노년층에 자주 발생하는 사칭각질환·인공관절 수술비 및 각종 중대 질병을 보장해 준다.

골절·화상의 경우 지급률에 따라 1000만원 한도로 보장하고, 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 등의 중병은 최초 1회에 한해 각각 500만원씩 지급한다.

또 백내장·중이염 등의 사칭각질환 수술비는 50만원, 인공관절 수술비는 300만원을 보장한다. 보험료는 60세 남자 기준 월 2만50원으로 50~75세까지 가입 가능하고 최대 90세까지(일부 담보는 80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문의 1644-9839

/김지우기자

고가의 포토샵SW 몇만원에 이용

어도비 클라우드 서비스 월정액 상품 부담 덜어

100만~300만원에 달하는 어도비 소프트웨어(SW)를 월 3만~5만원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포토샵·PDF로 유명한 한국어도비시스템즈는 1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CC)' 신제품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월 정액제 등 새로운 SW 판매 방식을 소개했다.

기존의 CD나 DVD 같은 패키지 형태의 SW 대신 클라우드 판매로 전환한다는 설명이다.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프리미어 프로 등으로 주요 업데이트는 오는 6월부터 제공된다.

일반 소비자는 1년 약정 기준으로 월 5만4000원에 어도비의 모든 SW를 사용할 수 있다. CS3부터 CS5.5버전을 구입한 기존 고객과 학생·교사는 월 3만2000원에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준영 한국어도비시스템즈 대표는 "기존의 CS 브랜드를 버리고 모든 제품의 브랜드는 CC로 재탄생했다"며 "클라우드 도입으로 다양한 기기에서 작업을 공유하는 것이 가능해져 작업 생산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어도비는 다음달 25일까지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월 2만1000원에 라이선스를 판매하는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Adobe Creative Cloud

/이국명기자

던킨도너츠 모닝메뉴 할인받는 앱

'모닝 스타트업' 출시 화제

던킨도너츠가 건강한 아침 습관을 도와주는 모닝 메뉴 할인 애플리케이션 '모닝 스타트업'을 선보였다.

모닝 스타트업은 알람 기능과 쿠폰 발급,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효과적으로 연계한 앱이다.

모닝 알람을 해제하는 '모닝 미션'을 성공한 후 오전 11시까지 매장을 방문하면 할인 쿠폰이 스마트폰으로 자동 발급돼 던킨도너츠의 모닝 메뉴를 최대 30% 저렴하게 즐길 수 있다.

다음달 3일까지 모닝 스타트업 앱을 받아 알람을 설정한 고객 1000명에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해피콘을 증정한다. 문의 www.dunkindonuts.co.kr

푸르밀 떠먹는 요구르트 'Dole 프리미엄' 4가지 맛

푸르밀이 청과 브랜드 '돌(Dole)'과 손잡고 떠먹는 요구르트 'Dole 프리미엄'을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Dole 프리미엄은 딸기·복숭아·블루베리·파인애플 4가지 맛으로 구성됐다. 변비 개선 등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프로바이오틱 비피더스 유산균을 함유하는 한편, 신선하고 풍부한 과육(딸기 기준 12.5%)으로 깊은 맛을 더했다. Dole 프리미엄은 전국 할인점 및 슈퍼에서 만날 수 있으며 권장 소비자 가격은 1팩(4개입) 기준 2600원.

푸르밀 관계자는 "Dole과의 이번 업무 제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보다 신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선보이게 됐다"면서 "추후에도 유제품 전반으로 Dole 브랜드를 확대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침 선크림도 저녁 클렌징도 '버블 스타일'

거품 제형의 뷰티 제품들 쿠션 효과로 피부 저자극 여름에 맞는 신선함 장점

올여름 뷰티업계가 '버블'에 주목하고 있다. 조밀한 거품이 피부 자극을 줄여 부드럽게 작용한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주요 뷰티 브랜드들이 버블 클렌징, 선크림, 쿨링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에뛰드하우스의 '솝베리 버블폼'은 탱글탱글한 솝베리 버블이 모공 속 노폐물까지 말끔하게 씻어낸다. 보습 성분을 강화해 세안 후에도 피부가 당기지 않는다. 300회 이상 펌핑이 가능한 대용량(300ml)이라 경제적이다. 이와 함께 '클렌징 오일은 질감이 뻑뻑하고 흘러내린다'는 단점을 극복한 솝베리 버블 클렌징 오일도 함께 선보였다.

네이처리퍼블릭의 '콜라겐 드림 360 탄산 클렌저'는 생크림처럼 풍성한 거품이 피부 탄력과 보습을 한 번에 관리해준다. 탄산 거품이 쿠션 역할을 해 피부에 자극 없이 클렌징 해준다.

이와 활동이 잦은 요즘 수시로 덧발라야 하는 자외선 차단제는 거품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무스 타입'이 대세다.

헤라는 '페이스&바디 겸용 선크림 선 메이트 쿨링 무스'를 선보였다. 피부에 닿는 순간 촉촉한 물방울로 변하는 신개념 무스로 가볍게 발리는 것이 특징이다. 해비라기 씨, 아사이베리 등 천연 유래 성분을 함유한 에뛰드하우스 '버블 선무스 SPF 40 PA++' 역시 부드러운 버블 무스가 산뜻하게 스며들어 끈적이거나 밀리지 않는다. 쿨링 기술을 적용해 바르는 순간 시원하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피부 미인' 고소영 효과?

아이오페 '에어쿠션XP' 출시 한 달 만에 100억 돌파

쿠션 화장품의 흥풍을 일으킨 아이오페 '에어쿠션'이 또 한번의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의 기능성 화장품 브랜드 아이오페는 '선블록 에어쿠션 XP'가 출시 한 달 만에 판매액 100억원을 돌파했다고 14일 밝혔다.

스탬프 타입의 메이크업 선제품 에어쿠션을 향상시켜 지난달 출시한 이 제품은 피부를 더 윤기나게 표현해주고 메이크업 위에 덧발라도 밀리지 않는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자외선 차단, 미백에 주름개선 등 탁월한 스킨케어 기능까지 더해진 것이 특징이다.

아이오페 브랜드 매니저 송진아 팀장은 "원래 재 구매율이 높은 제품이었는데 새로 업그레이드된 에어쿠션XP는 일부 매장에서 품절 사태를 빚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면서 "특히 최근 고소영이 직접 이 제품을 사용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네티즌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CJ오쇼핑 "홍콩에 'K 패션' 알린다"

후원 이석복 드민, 편집숍 입점

CJ오쇼핑은 자사가 후원하는 이석복 브랜드 드민(DEMIN)이 홍콩 최대 명품 편집매장인 'I.T'에 입점했다고 14일 밝혔다.

드민은 이탈리아 폴리모다 패션학교를 졸업하고 장폴고티에, 휴고보스 블랙 등 브랜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정민영 디자이너의 브랜드다. CJ오쇼핑은 지난 해부터 문화사업의 하나로 드민의 콘칭을 후원해왔다.

CJ오쇼핑은 최범석, 박승건, 고태용 등 국내 디자이너들의 해외 진출을 돕고, 한국패션디자인협회(CFDK) 소속의 신예 디자이너를 후원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물오른 5월 바닷가재 알뜰 장보기

홈플러스, 미국산 25% 할인

홈플러스는 16~22일 미국산 활(活) 바닷가재를 정상가보다 25% 할인해 판매한다고 14일 밝혔다.

미국 메인 주에서 항공편으로 직송한 활 바닷가재의 정상가는 1만9590원이지만 두 마리 이상 구매하면 마리당 1만4500원에 살 수 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발효 이후 관세율이 인하되면서 바닷가재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수산물이 됐다"며 "특히 5월 바닷가재는 1년 중 껍질이 가장 두껍고 살이 많아 맛이 좋다"고 말했다.

호텔비 맞먹는 '대여 캠핑'

일부 오토캠핑장 1박 사용료 16~18만원…텐트 구입이 장기적으로 저렴

오토 캠핑장의 텐트를 비롯한 용품을 빌리는 비용이 캠핑 장비를 구매하는 것보다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 괴산에 문을 연 국산 아웃도어 업체 K스포츠의 캠핑스쿨은 비수기인 6월까지 1평일 숙박료(1박)가 1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7~8월 성수기에는 하룻밤을 묵는 데 18만원, 2박 3일은 26만원이다. 이는 서울 시내에 위치한 고급 호텔의 투숙료와 맞먹는 가격이다. 요리 강습을 받을 경우에는 3만7000원에서 5만8000원가량의 추가 요금까지 더해진다.

경기도 포천의 C캠핑장은 비수기와 성수기의 주말 1박 요금이 각각 11만원, 16만원으로 나타났다. 7월 말에서 8월 초 극성수기에는 18만원까지 가격이 뛰었다. 같은 지역에서 펜션을 함께 운영 중인 B 캠핑장의 비수기 글램핑(텐트와 캠핑 도구 등 제품을 대여하는 캠핑) 1박 요금은 13만9000원으로 개별 샤워실과 냉난방 시설을 갖춘 펜션의 주중 1박 숙박료(8만원)보다 5만9000원 비쌌다. 공동 취사장과 샤워 시설을 갖춘 용인의 C 캠핑장 역시 비수기 텐트 일대 요금이 12만원으로 조사됐다.

비교적 저렴한 4인용 돔텐트 1동은 10만원 선에서 구매할 수 있다. 개인 텐트로 묵을 수 있는 캠핑 사이트의 1박 요금이 2만~3만원대인 것을 감안하면 캠핑 나들이에 취미를 붙이기 시작한 가족에게 '대여 캠핑'은 장기적으로 더 큰 지출이 될 수 있다.

한 캠핑 마니아는 "오토 캠핑장에서 텐트를 대여하는 것보다 합입 텐트나 저렴한 침낭 등을 직접 구매해 캠핑을 시작하는 것이 더 낫다"면서 "캠핑 문화 발전을 위해 캠핑장을 저렴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선미기자 kseon@metroseoul.co.kr

아이스데님셔츠로 연인 티 내볼까

게스 로맨틱 커플룩 제안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게스가 '성년의 날'을 맞아 '아이스 워싱 데님 셔츠'를 메인으로 한 로맨틱한 커플룩을 제안했다.

게스 관계자는 "남성은 데님 셔츠의 소매를 걷어 올려 시원한 느낌을 강조하고, 여성의 경우 셔츠 안에 빨간색 하트 장식이 들어간 슬리브리스를 입어 포인트를 주면 같은 듯 다른 느낌의 커플룩을 완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남성은 어두운 인디고 데님을, 여성은 짧은 길이의 쇼트 팬츠나 흰색 스키니진을 입으면 멋스럽다. 문의 www.guesskorea.com 02)516-5611

/박지원기자

빈폴아웃도어 '럭셔리 캠핑' 라인 출시

빈폴아웃도어가 캠핑용품 시장에 진출한다.

제일모직 빈폴아웃도어는 럭셔리 캠핑을 뜻하는 '글램핑(Glamping)'을 브랜드 이미지로 삼아 텐트와 침낭, 그릴 랜턴 등 6가지 용품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제품은 밝고 선명한 컬러와 함께 소비자의 편의를 고려한 실용성 등으로 차별화했다.

텐트는 1~2인용 경량 텐트, 가족 단위 캠핑족을 위한 5~6인용과 4~5인용 의장형 텐트 등 총 다섯 가지 라인이다. 또한 글램핑 라인의 전략 상품인 후드 침낭은 상황에 따라 침낭과 아우터로 활용할 수 있는 트랜스포머형 제품이다.

빈폴아웃도어의 글램핑 라인은 수원·부산·대구·대전 등 전국 주요 25개 매장에서 판매한다. /박지원기자 ssy@

제주 호텔들 "유모차는 두고 옵서예"

유아 동반한 여행객 위한 'VIB' 서비스 대폭 향상돼 용품 대여부터 캠프까지

롯데호텔제주의 스토케 VIB패키지 고객을 위한 유아용품들

VIB(Very Important Baby)가 시장의 주 고객으로 급부상하면서 유모차부대를 잡기 위해 호텔업계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과거 특급호텔은 주의를 소홀히 할 경우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고 다른 투숙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유아 동반 입장을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어린 자녀와 함께 호텔을 찾는 30~40대 고객의 비중이 늘면서 고급 유모차를 대여하는 등 유아 서비스를 대폭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롯데호텔제주는 지난해 노르웨이 유아용품 업체인 스토케 코리아와 손잡고 스토케 VIB 패키지'를 출시했다. 투숙 기간 내내 스토케 익스플로리 유모차를 대여할 수 있으며 유아용 침대·의자·기저귀 갈이대와 수납장까지 비치해 여행 시 챙겨야 할 각종 육아용품의 부담을 덜었다. 이외 스파&가든 '해온'에는 젖이식 아기 욕조 클럽서비스'를 설치했다.

제주신라호텔에서도 '벅클라텐 짐하단 유모차를 대여해주는 '아이러브 패키지'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부모가 여행을 즐기는 동안 아이들을 돌봐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젊은 부부들이 선호한다. 36개월~5세 어린이들은 점보리 캠프 프로그램과 유아 스포츠 교실 중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으며 6~12세 어린이는 꼬마 요리사와 키즈 아일랜드 캠프 프로그램 중 하나를 고르면 된다.

하얏트리젠시 제주는 'VIB 서비스'를 신설하고 만 2세 유아와 함께 방문하는 고객에게 유모차와 유아 침대·욕조·젖병 대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권보람기자

자궁질환 로봇수술의 세계로

이대병원 22일 심포지엄서 기기조작 체험시간도 마련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이 22일 오후 2시부터 이대목동병원 2층 대회의실에서 '여성의 자궁질환과 로봇수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1부 일반인을 위한 체험 강좌와 2부 전문인을 위한 심화 강좌로 나뉜다.

체험 강좌에서는 이대여성암병원 부인종양센터 문혜성 점경이 이사라 교수가 차례로 나서 '여성의 자궁질환에서 로봇수술은 복강경 수술보다 좋은가?' '로봇수술에 대한 오해와 진실' '로봇수술, 그 무한한 가능성은 현재 어디까지 왔는가'라는 주제로 각각 강좌를 진행한다. 강좌 후에는 참석자들이 평소 접하기 힘든 로봇수술 기기를 직접 만져보며 조작해볼 수 있는 체험 시간도 갖는다.

2부 심화 강좌에서는 산부인과 전문의의 로봇수술 패널 토론회를 개최해 악성과 양성 자궁질환의 로봇수술 치료에 대한 최신 지견 발표와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02)2650-5998 /박지원기자

metro entertainment

star bag

스승 사랑받았을 스타 1위

미쓰에이 **수지**가 '파장 시절 선생님의 사랑을 독차지했을 것 같은 여성 스타' 1위에 선정됐다.

인터넷 강의 그룹 세븐에듀에 따르면 2~13일 425명을 대상으로 스승의 날을 기념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수지(190명 45%)가 1위를 차지했다. 수지는 영화 '건축학개론'에서 깨끗하고 맑은 이미지를 선보여 남성 팬들의 절대적 지지를 얻고 있다. 김태희(160명 38%)는 2위에 올랐다.

'SNL코리아' 출연한다

세계적인 싱어송라이터 **제이슨 므라즈**가 tvN 성인 코미디쇼 'SNL 코리아'에 출연한다.

제작진은 14일 "다양한 분야의 유명인과 함께하는 특집 크루쇼로 꾸며질 18일 방송에 내한 공연차 방한한 므라즈가 출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송에는 최근 MBC '진짜 사나이'에서 주가가 급상승 중인 호주 출신 방송인 샘 해밍턴, 가수 JK김동욱과 윤하 등도 출연한다.

웨딩드레스 자태 '감탄 연발'

배우 **신세경**이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아름다운 자태를 뽐냈다.

MBC 수목극 '남자가 사랑할 때'에 서미도 역으로 출연 중인 그가 지난주 강남에 있는 한 웨딩드레스 상점에서 웨딩드레스를 입은 장면을 촬영했다. 촬영 당시 이 모습을 본 송승헌과 스태프들은 탄성을 질렀다는 후문이다.

신곡 '여자를…'로 가수 컴백

방송인 **붐**이 가수로 컴백한다.

그는 각종 예능 프로그램 출연으로 바쁜 가운데 앨범 작업을 마무리하고 16일 신곡 '여자를 모른다'를 발표한다. 소속사는 "현실적이고 서글픈 가사와 트렌디한 리듬이 만나 세련된 곡이 탄생했다. 붐의 노래라고 하기에는 의심스러울 정도로 진지하고 남성적이다"고 설명했다. 붐은 작사 작업에 참여했다.

"대본이 날 치유…아버지 이해"

영화 '미나문방구'

배우 최강희(36)에게 16일 개봉하는 영화 '미나문방구'는 추억이다. 지난여름과 가을 촬영을 위해 머물던 경주의 아름다움과 출연 계기가 됐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이번 영화에 깊이 녹아있다.

◆ 촬영지 경주에 푹 빠진 그녀

인터뷰 자리에서도 애써 영화를 홍보하려 하지 않고, 그저 일상의 관심사를 툭툭 내뱉는다. 최근 드라마 '7급공무원'을 끝낸 그는 두 차례 여행을 다녀왔다며 잠시 추억에 젖었다. 드라마팀과 강원도 철원으로 단체 여행을 갔고, 혼자 경주 여행을 다녀왔다.

"경주는 연인끼리나 혼자 여행하기에 정말 좋은 곳이에요. 전 아직 연인이랑은 못 가봤지만요. 도시에 둘린 시야가 좋아요. 건물들은 낮고, 호수가 있고, 어디든 산책하기 좋아요. 가을에는 온통 낙엽들로 뒤덮인 이곳이 제게는 더없이 좋은 여행지였죠."

경주에 푹 빠지게 된 건 이 영화 촬영으로 인연을 맺은 뒤부터다. 영화에는 배경이 경주라는 언급이 없었지만, 정익환 감독은 영화 분위기에 딱 맞는 문방구를 찾기 위해 전국을 뒤졌다. 결국 경주를 촬영지로 낙점했고, 여름과 가을 내내 현지에 머물며 촬영을 진행했다.

영화와 경주에 푹 빠진 최강희는 가장 아끼던 일인 라디오 DJ마저 그만두며 촬영에 전념했다.

"그동안 라디오를 하면서도 몇 작품 했어요. 투잡 개념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생방송을 고수하다 보니 청취자와 제작진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라디오가 정말 좋지만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그만뒀어요. 라디오를 떠나보낸 뒤 실연당한 여자의 심경이었죠."

문방구 주인 역할… 추억과 재회 따뜻한 웃음주는 무방부제 작품

◆ 최면 걸어 캐릭터에 집중

'미나문방구'는 구청 공무원인 미나(최강희)가 정직을 당한 후 아버지의 문방구를 떠맡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렸다. 어릴 적부터 싫어했던 문방구를 하루빨리 처분하려 하지만 단골 초등학생들 때문에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들과 티격태격하며 보내는 일상 속에 추억과 재회하고 화해한다.

"촬영장은 평온한 분위기지만 촬영 내용은 전쟁과 같았어요. 미나는 늘 화가 나 있는 인물인데 현장에서 아이들과 어울리다 보면 그럴 수 없었죠. 출근길 지하철에서 사람들 사이에 치이고 있다는 최면을 걸면서 연기했어요."

실제 아버지와의 관계는 이 영화를 택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막 연기 생활을 시작하던 20대 초 세상을 떠난 아버지는 늘 멀게만 느껴지던 존재였고, 시나리오를 읽으며 머릿속은 아버지 생각으로 가득했다.

"아버지를 본 적이 많이 없었어요. 소풍을 간 거나 대화를 한 기억도 별로 없고요. 그러면서 한 번도 아버지의 입장을 생각하고 이해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대본을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따뜻한 웃음도 났고요."

마지막으로 '미나문방구'의 매력에 대해 "크게 웃기거나 눈물을 빼지는 않지만 따뜻한 치유가 있는, 느끼하지 않은 무자극의 무방부제 영화"라고 말했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사진/이완기(리온드캐쳐)

세계를
알립니다
국내최대 민영 뉴스통신사
NEWSis( )
2001년 9월 국내에 복수 뉴스통신사 시대를
열며 탄생한 뉴시스가 올해로 12년을 맞았습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차별화된 뉴스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뉴시스는 변함없이
24시간 불을 밝히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is( )
www.newsis.com

'형사반장 김성령'

영화 '포인트 블랭크'서 연기변신 류승룡과 호흡 "액션 자신만만"

대기만성 여배우들의 대표 주자 김성령이 이번엔 형사반장으로 변신한다. 새 영화 '포인트 블랭크'(가제)에서다.

소속사는 13일 그의 차기작 출연 소식을 알리며 "강한 여자로 얼음처럼 차가우면서도 불처럼 뜨거운 카리스마를 발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성령이 연기할 캐릭터는 날카로운 판단력과 민첩한 행동력을 겸비한 형사반장 영주로 의도하지 않은 사건에 휘말린 킬러와 아내를 납치당하고 킬러의 조력자로 나서는 남자를 동시에 추적하는 인물이다.

남자 역의 '언터처블 1000만 배우' 류승룡과 호흡을 맞춘 김성령은 "액션 스릴러는 정말 출연을 원했던 장르"라며 "끊임없는 운동으로 액션 연기도 자신 있다. 지켜봐달라"고 캐스팅 소감을 밝혔다. 이 영화는 '풍산개'로 관객들의 눈도장을 찍은 김기덕 사단의 수제자 전재홍 감독이 메가폰을 잡는다.

/조성준기자

<문병곤·김수진>

중앙대 출신 두 감독 나란히 칸영화제 간다

'세이프' '더 라인' 초청받아

같은 대학 같은 과 출신 두 새내기 감독이 칸에서 한국 영화인을 대표한다.

중앙대 영화학과를 졸업한 문병곤 감독과 김수진 감독이 15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 막을 올리는 제66회 칸 국제영화제 단편 경쟁 부문과 영화학도들의 작품을 대상으로 한 시네파운데이션 부문에 나란히 초청받아 화제다. 특히 올해는 장편 경쟁과 주목할 만한 시선 등 주요 부문에 진출한 한국 영화가 단 한 편도 없어 이들의 칸 입성은 더욱 눈길을 끈다.

문 감독은 '세이프'로 칸을 찾는다. 2011년 '불멸의 사나이'가 비평가 주간에 오른 데 이어 두 번째 나들이다.

13분 분량의 이 작품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 환전소 여직원과 도박에 중독된 사내를 통해 현대인의 슬픈 자화상을 스케치한다. 파리에 머물고 있는 문 감독은 13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개막과 함께 현지로 가 영화제 기간 내내 거장들의 최신작들을 보려 한다"며 "수상에 대한 기대보다는 전 세계 3500여 출품작들 중 9편의 본선 진출작에 포함됐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감독이 졸업작품으로 만든 '더 라인'은 비슷하게 불우한 처사의 여성과 아이가 서로 감정을 주고받는다는 내용이다. 20일부터 24일까지 재류할 예정이며, 17편과 수상을 다툰다.

한편 26일까지 열리는 올해 영화제는 할리우드 톱스타들과 유명 감독들의 무더기 방문으로 그 어느 해보다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할리우드 작품들의 강세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장편 경쟁 부문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과 니콜 키드먼, 개막작 '위대한 개츠비'의 세 주역인 리어나도 디캐프리오·캐리 멀리건·토비 맥과이어, 장편 경쟁 부문에 진출한 '인사이드 르윈 데이비스'(코엔 형제)의 저스틴 팀버레이크와 '비하인드 더 캔덜라브러'(스티븐 소더버그)의 맷 데이먼 등이 레드카펫을 밟는다.

/칸=조성준기자 when@metroseoul.co.kr

wind8686@naver.com

신인감독 발굴의 장

버터플라이 프로젝트 공모전

CJ E&M이 '버터플라이 프로젝트'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이번 공모전은 신인 감독들의 데뷔를 돕는 취지로 마련됐다. 참가 자격은 단편 혹은 장편을 연출해본 유경험자이면서 장편 경력은 1편 이내인 연출자에게 주어진다. 시나리오와 이력을 바탕으로 1차 서류와 2·3차 면접 심사를 거쳐 선발하며, 최종 선정작은 3편 이내로 12월에 발표된다. 선정작은 내년 11월까지 제작 완료를 목표로 영화화가 추진된다.

공모전 홈페이지(http://cjenm.com/butterfly/butterfly.html)에서 응모 서류를 내려받아 10월 24일부터 31일까지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02)371-8168.

김태희 독해져야 '장옥정' 산다

악녀 변신에 드라마 시청률 반등…인기 '기대이상'

'독해진' 김태희가 월화극 꼴찌인 SBS '장옥정, 사랑에 살다'(이하 장옥정)를 살릴 수 있을까.

주인공 장옥정(장희빈) 역으로 출연 중인 김태희가 극중 악녀로 변신하면서부터 드라마 시청률이 반등하기 시작했다. 13일 방송된 11회 시청률은 전회보다 1.2%포인트 오른 9.2%(닐슨코리아 전국 기준)를 기록해 경쟁작인 MBC '구가의 서'(14.9%), KBS2 '직장의 신'(13.1%)과의 격차를 좁혔다.

김태희는 그동안 장옥정을 연기하면서 착하고 열정적인 조선시대 패션 디자이너의 모습을 강조해왔다. 제작진이 장희빈을 기존 사극이 묘사해온 악녀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재해석하겠다는 의도로 퓨전사극을 표방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생소한 장희빈 캐릭터는 극 전개에 설득력 있게 녹아들지 않았고, 퓨전 사극과 정통 사극을 갈팡질팡하는 전개는 시청자들로부터 반축을 샀다. 사극에 처음 도전한 김태희마저 어색한 연기력으로 질타를 받으면서 드라마는 낮은 시청률로 고전해왔다.

반면 13일 방송은 퓨전 사극 분위기를 걷어내고 악녀 장희빈의 모습을 강조했다. 민유중(이효정)의 음모로 죽을 뻔했던 장옥정이 이순(유아인)이 있는 궁으로 돌아와 복수를 다짐하고 신분 상승을 향한 욕망을 드러내는 모습이 전파를 타면서 긴장감을 높였다.

김태희 역시 악녀 연기를 기대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펼쳤다는 평가를 받으며 그동안 출연하는 작품마다 번번이 한었던 연기력 논란 꼬리표를 뗄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다.

드라마 관계자는 "장옥정이 14일 방송에서 후궁 첩지를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악녀 장희빈의 탄생을 알리게 된다"면서 "그러나 퓨전 사극이라는 초기 기획 의도를 포기한 건 아니다. 향후 전개에서 패션 디자이너로서의 모습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탁진현기자 tak0427@metroseoul.co.kr

SBS '장옥정, 사랑에 살다'에서 장옥정이 후궁 첩지를 받는 장면

백지영·정석원 커플 속도위반 아니라더니

임신 9주째 … 신혼여행 미뤄

다음달 결혼하는 백지영이 임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백지영은 임신 9주째로 신혼여행을 미루고 태교에 전념할 예정이다. 소속사는 임신 사실을 확인하며 "이 소식에 두 사람과 양가 가족이 무척 기뻐했다"고 전했다.

백지영과 정석원이 지난달 구체적인 일정 없이 결혼 발표를 했을 당시 속도위반 때문에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궁금증이 일었지만 당사자들은 부인했다.

두 사람은 다음달 2일 광장동 W호텔에서 웨딩마치를 울린다. 주례는 '나는 가수다'에서 인연을 맺은 MBC 김영희 PD가 맡는다. /유순호기자

이효리 '배드걸'로 귀환

타이틀곡 공개 … 절제된 섹시미

이효리가 본색을 드러냈다.

5집 '모노크롬'을 발표하고 3년 만에 컴백하는 이효리가 14일 베일에 가려져 있던 타이틀곡의 실체를 공개했다.

'배드 걸즈'라는 제목과 함께 티저 이미지를 공개했으며, 이효리는 뇌쇄적인 눈빛의 절제된 섹시 매력을 드러냈다. 특히 티셔츠 아래로 슬며시 드러낸 11자 복근은 올해 무대에서와 콘셉트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소속사 공식 SNS에 '이효리! 나쁜 여자로 돌아오다!'라고 밝힌 이효리는 14일 진행하는 엠넷 '이효리쇼'에서 이 곡을 최초로 공개한다.

/유순호기자

예년보다 빛나는 몸매 가수 손담비가 때 이른 더위에 맞춰 시원한 비키니 몸매를 드러냈다. 눈썹 펄로그 스톡샵K 모델로 활동하는 그는 클리킨 세부의 에메랄드 빛 해변을 배경으로 새로운 콘셉트의 여름 광고를 촬영했다. 잘록하고 군살 없는 허리와 탄탄한 복근, 세련된 보디라인이 눈길을 끈다.

▶ 비치보다 아름다운 몸매네요. /유순호기자

김혜수 '직장의 신' OST 참여

134개의 자격증을 갖춘 만능 계약직 '미스김'이 노래까지 섭렵했다.

KBS2 월화극 '직장의 신'에 미스김 역으로 출연 중인 김혜수가 직접 부른 드라마 OST 파트6 '러브 이즈 …'가 14일 공개됐다. OST 제작사 토일렛은 "김혜수가 드라마 촬영으로 바쁜 와중에도 OST에 참여했다"면서 "김혜수의 참여로 팬들에게 좀 더 의미 있는 OST 앨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OST 앨범에는 신선지·윤하·김태우·팀투·신지수 등도 참여했다. /탁진현기자

日 서머소닉 무대 달굴 '형제 밴드'

FT아일랜드·씨엔블루 도쿄·오사카 공연펼쳐

아이돌 K-밴드 쌍포 FT아일랜드와 씨엔블루가 일본 최대 음악 페스티벌 무대를 수놓는다.

이들은 8월 10~11일 도쿄와 오사카에서 열리는 음악 페스티벌 '서머소닉 2013'에 출연한다. 14일 공식 홈페이지는 이들의 출연을 확정해 발표했다.

FT아일랜드는 2010년 행사 때 오사카 무대에 선 이후 3년 만이며, 씨엔블루는 처음으로 서머소닉에 출연한다.

일반적으로 한 지역에서만 공연하는 것과 달리 FT아일랜드와 씨엔블루는 8월 10일 도쿄에 이어 11일 오사카에서 연이어 공연하며 톱 드라이너급 인기를 과시한다.

두 팀은 아이돌 댄스 그룹을 중심으로 글로벌 K-팝 열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밴드로서 독보적인 입지를 나섰왔다. 두 팀 모두 일본 아레나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씨엔블루는 현재 월드투어를 도는 등 급속도로 인기를 높여가고 있다.

서머소닉은 일본의 대표적인 여름 음악 축제로 지난해에는 그린데이·리아나·시규어로스·뉴오더·스매싱 펌킨스·자미로콰이 등 톱 뮤지션이 대거 참여했다. 올해는 뮤즈·메탈리카·린킨 파크·펫샵보이즈 등 레전드 등이 참가한다.

한편 FT아일랜드는 다음달 5일 세 번째 앨범 '라이프드 FT' 발매와 함께 15일 미야기를 시작으로 일본 주요 도시를 돌며 공연한다. 씨엔블루는 7월 24~25일 삿포로를 시작으로 전국의 제프 공연장 무대에 오른다. /유순호기자 suno@

제주 알고보니 '템플스테이의 명당'

불경투 석탄일 제주 사찰

동양 최대규모 자랑 약천사
한라산 등산로 인결 관음사
장보고가 창건한 법화사 등
관광객 수련프로그램 마련

◆낙천리 아홉굿마을과 올레 13코스

서쪽에 샘(泉)이 많은 마을이란 뜻의 이름을 가진 낙천리는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에서 동쪽으로 7km 지점의 중산간에 위치하고 있다. 서부 제주의 갈숙한 안쪽으로 관광 동선이나 교통 동선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어 예전에는 제주의 택시기사들도 내비게이션 없인 쉽게 찾아가지 못했다. 그러나 2003년 '농촌전통테마마을'로 선정된 이후 'KBS2 해피선데이-1박2일' 등의 촬영 장소가 되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게 됐다.

물맛이 너무 좋아 사색에 잠기게 된다는 낙천리 아홉굿마을은 '풍부한 연못' '비옥한 토양' '마늘·오이 등 농산물 풍작' '직접 만드는 보리빵' '아름다운 천연 염색' '마을 숲 의자 1000개로 만든 쉼팡' '올레(골목) 마을 사람의 이야기' 등 볼 아홉 가지의 좋은 점이 있다고 한다. 그중에서도 1000개의 의자는 각각 고유의 이름을 갖고 있어 그 내력이 더욱 재미나다.

낙천리 아홉굿마을은 용수포구 절부암에서 출발해 저지리마을회관 등 내륙으로 향하는 올레 13코스에 속한다.

◆종교를 넘어 자연과 하나가 되는 제주 템플스테이

석가탄신일(17일)은 연등 행사와 관등 놀이를 중심으로 갖가지 민속 행사가 열린다. 수박·거북이·오리·학·배·연꽃·잉어 등 민속 신앙을 곁들인 다양한 연등이 거리를 채우고 강에는 연등을 실은 배를 띄운다. 연등 행사와 함께 제주의 자연환경을 즐길 수 있는 템플스테이 장소로는 약천사·관음사·법화사·광명사가 있다.

서귀포시 대포동에 위치한 약천사는 조선 초기 불교 건축 양식으로 지었으며 단일 사찰로는 동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법당 안 종각에는 효도를 강조하는 글과 그림이 새겨진 18t 무게의 범종이 있으며 조선시대 임금인 문종과 현덕왕후, 영친왕 등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약천사 템플스테이에서는 기본 예절 교육과 합장·절하는 방법을 배우는 사찰 예절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홈페이지(www.yakchunsa.com/)에서 사전 예약할 수 있다.

관음사(사진)는 제주시 아라동 한라산 동북쪽 기슭 산천단에서 3km 떨어져 있는 곳으로 사찰 주변에는 선친단·한라산·어리목계곡·탐라계곡 등이 있다. 한라산 등산로인 '관음사 등산' 코스를 끼고 있어 관광객들도 즐겨 찾는다. 법화사는 대한불교 조계종에 소속된 사찰로 신라의 무장 장보고가 창건했다. 템플스테이는 아놀과 108예참·기도·참선·다도·마인드컨트롤·테라피 요기 등으로 구성돼 있다.

광명사는 제주 불교사에 큰 업적을 남긴 방동화 스님이 창건한 곳으로 템플스테이를 하는 이들은 아침 예불과 정해진 공양 시간에 반드시 참석하고 사찰의 생활 방식에 맞춰 행동해야 한다. /김보람기자 kasm@metroseoul.co.kr

제주어 시감상

<제주어>
가는 세월 /고훈식

국민학교 동창을 길에서 만나신디
가이네 하르방은 어떵된산
구만이 봐리단 손에기 악수를 청햇다
가이도 나 양지를 뚫라지게 쳐다보단
바갈게 손을 마주 심먼 웃어멍
너도 너네 아방 똑으시 닮앗네 이

<표준어>
가는 세월 /고훈식

국민학교 동창생을 길에서 만나고는
그 친구의 할아버지의 아들인가 하고
한참 쳐다보고 손에서 악수를 청했다
그도 내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반갑게 손을 맞잡으면서 웃고는
자네도 자네 아버지를 빼닮았네그려

■ 세계7대자연경관 제대로 즐기기-2박3일 가족여행코스 2탄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제주관광공사가 가족 여행에 꼭 맞는 코스를 추천했다. 온 가족이 함께 발랄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장소부터 아이들이 뛰놀기 좋은 곳, 어르신들도 편하게 구경할 수 있는 관광 명소까지 두루 담았다.

<1일차> (서부지역) 공항→한림공원→유리의성→중식→서귀포해안도로 드라이브 코스→박물관은 살아있다→국제평화센터(밀랍인형전시관)→중문단지 내 면세점 쇼핑→석식 후 숙소(중문 및 서귀포지역)

<2일차> (남부권 & 동부지역) 숙소→천지연폭포→쇠소깍→섭지코지→아쿠아플라넷(해양과학관)→세계자연유산센터→선녀와나무꾼→석식 후 숙소(제주 시내)

<3일차> (중산간 및 북부지역) 숙소→미로목지사진 촬영→산굼부리 또는 사려니숲길(일부 구간)→국립박물관 또는 자연사박물관→용두암해안도로(자유 시간 중식 및 무한카페 이용)→공항

What's Hot

영국 핸드메이드 코스메틱브랜드 러쉬(www.lush.co.kr)는 스승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다양하고 독특한 선물세트를 마련했다.
이 중 '아빠'는 헤어용 컬러의 쌈기의 심쿵 '대디오(DADDY-O)'와 활용한 입기의 컨디셔너 '이익러한 크림'으로 구성됐다. '비3'는 대리솔 + 허니키즈 + 락스타(각 150g)로 구성돼 스승의날 선물로 제격이다. 문의 1544-2357

서울여자대학교(총장 전혜정)는 지난 13일 교내 학생누리관 117호에서 정보보안 분야의 선두 기업인 트렌드마이크로의 에비 첸(사진) CEO를 초청해 특별 강연을 열었다. 이번 강연은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학과장 김동철)가 학생들에게 정보보호 전문가로서의 꿈과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이번 강연을 통해 학생들은 세계 정보보호의 최신 동향과 정보보호 전문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지식 및 인성 등에 대해 소개받았다.

정부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코이카 제10대 이사장으로 김영목(사진) 전 뉴욕총영사가 취임했다. 김영목 신임 이사장은 13일 경기도 성남시 시흥동에 위치한 코이카 본선에서 취임식을 갖고 3년 임기를 시작했다.
김 이사장은 직업 외교관(외무고시 10회) 출신으로 대북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국제부장 및 특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사무국 사무차장 등을 역임했다.

숭실대학교 입학사정관센터(센터장 임혜진)는 25일부터 6월 22일까지 매주 토요일 서울 상도동 교내 한경직기념관 대예배실에서 '입학사정관제 튜터링 전공체험'을 개최한다. 이 행사는 진학을 앞둔 수험생에게 올바른 전공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매회 1000여 명의 참관자를 대상으로 총 5회에 걸쳐 진행된다. 문의 02)820-0015 (iphak.ssu.ac.kr/so)

풀무원식품의 프리미엄 생과일 음료 브랜드 '아임리얼'이 친환경 용기로 제작된 620㎖ 대용량 제품 출시를 기념해 13일 서울 광화문 동아미디어센터 앞 광장에서 아나 화분을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에 출시된 아임리얼 620㎖ 대용량 제품은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식물성 자연 원료를 30% 사용해 만든 친환경 용기 제품으로 이산화탄소 발생률을 20% 낮췄다.

IBK기업은행(은행장 조준희, www.ibk.co.kr)은 서울역사 내에 중소기업 제품 전용 판매상인 '중소기업 명품마루' 1호점인 서울역점을 개점했다고 13일 밝혔다.
중소기업 명품마루를 통해 중소기업들은 제품 판로의 새로운 채널을 마련하고, 소비자들은 우수한 제품을 유통 마진 없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 명품마루에는 140여 개 중소기업의 제품 1300여 종이 전시·판매된다.

빵집·복합몰에도 갤럭시 스튜디오 오픈

갤S4 체험장 115개로 확대

삼성전자가 갤럭시S4 체험 중심의 갤럭시 스튜디오'를 확대 운영해 소비자 체험 마케팅 강화에 나선다.
갤럭시 스튜디오는 크리슈머 마케팅의 일환으로 소비자들이 직접 삼성 갤럭시 제품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복합쇼핑몰과 주요 대학가, 스포츠 경기장 등에서 운영해왔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4 체험 중심의 갤럭시 스튜디오를 용산 아이파크몰, 여의도 IFC몰 블루스퀘어, 기획

드롭탑, 제너럴아이디어 매장 등에 이어 순차적으로 롯데백화점, 던킨도너츠, 파리바게트, 에버랜드 등 국내 약 115개 지점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대학가 축제 기간인 이달 중 서강대, 서울대, 명지대, 서울과학기술대 등 약 20개 대학에서 갤럭시 스튜디오를 만날 수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보다 다양한 접점에서 소비자들이 갤럭시S4의 혁신적 기능을 만날 수 있도록 체험 중심의 갤럭시 스튜디오를 확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갤럭시S4 체험 마케팅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편한 슈즈 '락포트' 선물을!

10일까지 최대 30% 할인
20만원 구매땐 우산 증정

스타일로 완성된 편안한 슈즈 브랜드 '락포트(www.rockportkorea.com)'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락포트는 부모님과 은사 등 고마운 분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선물을 전할 수 있도록 락포트 스페셜 데이 이벤트를 진행한다.
19일까지 이벤트 기간에는 20%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2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락포트 이니셜이 새겨진 우산을 증정한다. 특히 락포트 회원 및 신규 회원들에게는 추가 10%(총 3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자세한 내용은 락포트 공식 홈페이지(www.rockportkorea.com)나 공식 블로그(www.rockportblog.net)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의 락포트 컨벤스토어 ⓔ 타임스퀘어(02-2635-7728) IFC몰(02-6137-5100)

'목요일 저녁의 행복' 칵테일

르네상스서울호텔 트레비

르네상스 서울 호텔의 트레비 라운지는 매주 목요일 저녁 믹솔로지스트 다니엘(사진)이 선보이는 칵테일 이브닝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트레비 라운지는 매주 목요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만 1만6000원(세금 및 봉사료 포함)의 특별한 가격에 매주 다른 칵테일을 준비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모든 칵테일은 트레비 라운지의 믹솔로지스트 다니엘이 손님에 그날의 날씨와 고객의 성향 및 기분에 따라 새로운 칵테일을 만들어 제공한다.
청량한 날씨의 목요일 이브닝라운지를 방문하는 여성 고객에게는 시원하고 풀 켓이 달콤한 칵테일을 만들어주고 비 오는 목요일에 술을 하는 남성에게는 감성적이지만 깊은 칵테일을 준비한다.
문의 및 예약 02)2222-8627

하이마트서 '하츠 후드' 찰칵

31일까지 입점 기념 행사

후드 전문기업 하츠(대표 김상식 www.haatz.co.kr)가 스마트 후드의 하이마트 입점을 기념해 31일까지 '하츠 후드 인증샷' 이벤트를 진행한다.
서울 경기지역을 포함한 전국 60개 하이마트 매장 중 한 곳을 방문, 전시존에 전시된 하츠 스마트 후드를 촬영하고 인증샷을 남기면 된다. 참여는 하츠 공식 커뮤니티인 우먼스하츠(cafe.naver.com/womenshaatz)에서 가능하다.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들을 위해 다양한 경품이 마련돼 있다. 1등에게는 50만원 상당의 여행상품권(1명), 2등은 3만원 롯데상품권(5명), 3등에게는 예쁜하츠 후드 티셔츠(10명)를 증정한다. 당첨자는 추첨을 통해 다음달 5일 우먼스하츠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하츠는 지난 1일 전국 하이마트 매장 중 일정 규모 이상의 별도 전시존을 갖춘 곳을 우선 선별해 입점했다.

하츠를 찍어보세요!

직장 소통·리더십 주제 둘째 토요일마다 특강

경희사이버대학교(총장 조인원)는 지난 11일 회기로원 정보행정동 제1세미나실에서 '조직의 성과를 이끄는 솔리더 리더십'을 주제로 취업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경기대학교 김해춘 교수의 강의로 기업 직장 동아리 등 조직 활동에서 좋은 성과를 이끄는 방법과 학원들을 리드하는 방법이 제시됐다.
경희사이버대는 한국기업교육리딩소사이어티(Leading Society)와 산학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파트너십 프로그램인 '커리어 스쿨'을 선보였다.
취업 이직을 비롯해 직장 내 커뮤니케이션 리더십 등의 주제로 매월 둘째 주 토요일 특별한 강의를 펼치고 있다. 문의 02)3299-8734

천안에 '제2공장' 가공 글로벌 진출 발판 마련

의약품 전문 CMO 기업인 ㈜펜믹스는 지난 10일 충남 천안에 위치한 생산 부지에서 김영흥 대표이사와 최재혁 건일제약㈜ 대표이사, 임직원 및 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주사제 전용 CGMP 공장(펜믹스 제2공장) 신축 준공식을 가졌다.
펜믹스는 체계적으로 쌓인 기존의 제다품기로 유명한 일본 시장을 통해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일본 주사제 전용 제2공장을 신축함으로써 일본은 물론 유럽,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제2공장은 건축면적 3300㎡, 연면적 7600㎡ 규모로 원료 분말 비어슬의 동결 건조 바이알을 생산할 수 있는 자동화 라인을 갖추고 있다.

What's Cool

글로벌 피트니스 브랜드 리복이 요가 컬렉션을 출시하는 등 시에, 슈퍼모델 출신 디스코리 출신 유명 요가 강사 송다은(사진)씨를 리복 코리아의 피트니스 요기 앰버서더로 발탁했다. '시작은 멈추지 않는다(라이브 위드 파이어)'라는 글로벌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리복은 캠페인의 일환으로 피트니스 요가 컬렉션을 출시했다.

롯데그룹의 통합멤버십서비스 롯데멤버스는 최근 서울시청 지하상가의 전체 옥외광고물에 시민들을 위한 '웃음갤러리'를 열었다.
서울시청 지하상가에 마련된 웃음갤러리는 롯데멤버스에서 기획한 '빅플레저(Big Pleasure)' 캠페인의 첫 번째 단계로 바쁜 일상에도 희유학부를 공상하며 살고 있는 시민들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걸작 웃자'를 테마로 꾸며졌다. 현재 생활의 기쁨과 웃음을 표현한 이순구 화가의 웃다 작품 원화 26점이 전시되고 있다.

롯데닷컴은 20일 성년의 날을 앞두고 '핫 브랜드 키워드(Hot Brand Keyword)' 기획전을 연다.
MD 추천 상품으로 에고이스트 언더웨어 지브라 바이올렛 브라팬티세트(1만5930원)와 원더브라 정품 브라 1종 WWBR2A04(1만 9000원), 원더브라 정품 팬티 1종 WWPT2A04(9000원)가 있다. 현재 롯데닷컴에서는 구매 사은행사가 한창이다.

파나소닉코리아(대표 노운하·panasonic.kr)는 16일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전시장 A, C, D홀 전관에서 열리는 '제23회 국제 음향·음향·조명기기 전시회(KOBA 2013)'에 참가해 다양한 신제품을 출품, 전시한다. 이번 전시회에서 파나소닉코리아는 4K 방송 환경에 적합한 솔루션을 소개할 예정이다. 4K 방송 활용을 위한 파나소닉의 실질적인 첫걸음인 AVC-Ultra 코덱 플랫폼을 적용한 ENG 카메라와 각종 신제품들이 전시된다.

버드와이저가 본격적인 캠핑 시즌을 맞아 버드와이저와 가장 잘 어울리는 자신만의 캠핑 레시피, 노하우를 공개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페이스북에 캠핑에서 버드와이저와 가장 잘 어울리는 캠핑 레시피와 노하우를 올리고 추천을 많이 받은 참가자들에게 캠핑용품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접수 기간은 24일까지이며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첨자를 발표한다. 문의 www.facebook.com/BudweiserKOR

실용 항공사 진에어(www.jinair.com)의 마원(오른쪽) 대표는 13일 서울시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나가사키현 호도 일본 나가사키현 지사와 인천~나가사키 정기 노선의 성공적인 개설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교환하고, 취항에 필요한 상호 지원 업무의 이행과 향후 노선 활성화 등에 대한 협력 의사를 확인했다.

연승 달린 사자! 연패 끊은 호랑이

삼성 7연승 선두 껑충… 한상훈 5인타 한화, 넥센 제압

삼성이 시즌 팀 최다 7연승을 달리며 선두로 올라섰고 KIA는 기나긴 5연패에서 탈출했다.

KIA는 14일 광주구장에서 열린 2013 한국야쿠르트 세븐프로야구 SK와의 홈경기에서 선발 김진우의 호투와 신종길의 2타점 결승타에 힘입어 3-1 승리를 거뒀다.

연패에 허덕이던 KIA는 3회말 1사 1·3루, 4회 1사 1·2루 등 득점 찬스를 살리지 못하며 답답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그러나 5회 1사 후 SK 선발 레이예스의 제구력 난조를 틈타 박기남·김상훈·이용규가 연거푸 볼넷을 골라낸 뒤 신종길이 3루수 키를 넘기는 2타점 적시타를 날려 승기를 잡았다.

SK에서 KIA로 트레이드된 송은범은 8회초 '친정' 팀을 상대로 구원 등판했지만 최정에게 솔로포(10호)를 허용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마무리 앤서니 르루가 1⅓이닝을 무실점으로 틀어막아 승리를 지켰다. KIA 선발 김진우는 6이닝 3피안타 4볼넷 9탈삼진 무실점으로 시즌 3승째를 낚았다.

삼성은 두산을 7-3으로 꺾었다. 7연승을 달린 삼성은 20승10패를 기록해 넥센을 2위로 밀어내고 선두로 올라섰다. 삼성 선발 배영수는 5이닝 8피안타 2볼넷 3탈삼진 1실점으로 시즌 가장 먼저 5승을 수확했다.

'꼴찌' 한화는 선두 넥센을 상대로 선발 김혁민의 호투와 한상훈의 맹타를 앞세워 7-2로 완승했다. 한상훈은 이날 5차례 타석에서 모두 안타를 때리며 4타점 3득점을 기록했다. 김혁민은 7이닝 5피안타(1홈런) 2볼넷 4탈삼진 1실점으로 시즌 2승을 신고했다.

NC와 롯데는 12회 연장 혈투를 펼쳤지만 2-2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진정 팬에 인사하는 김상현 SK 유니폼을 입은 김상현이 14일 광주구장에서 열린 KIA전에서 1회 첫 타석에 들어서며 팬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김상현은 이날 4타수 무안타에 그치며 체면을 구겼다. /연합뉴스

골프 스타 제주로 모여라

16~19일 SK텔레콤 오픈… 김비오·최경주 '신구대결' 관심

국내외 골프 스타들이 이번주 제주도로 총출동한다.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SK텔레콤 오픈이 16~19일 나흘간 제주 서귀포의 핀크스 골프장에서 열린다. 제주에서 개최되는 유일한 KPGA 메이저대회로 150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총 상금 10억원(우승 상금 2억원)을 놓고 샷 대결을 펼친다.

올해 대회는 2연패를 노리는 김비오(23)와 역대 최다 우승자 최경주(43)의 '신구 대결'로 압축된다.

미국프로골프(PGA) 2부 투어에서 뛰는 김비오는 지난해 GS칼텍스 매경 오픈과 SK텔레콤 오픈 정상에 오르며 상금왕을 확정 지었다. 김비오가 이번에 우승하면 1999~2000년 박남신, 2001~2002년 위창수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2연패를 달성한 선수가 된다.

최경주는 2003년과 2005년, 2008년 이 대회에서 우승해 가장 많은 우승컵을 수집했다. 이들 외에 장타자 김대현, 상금랭킹 4위를 달리는 홍순상 등도 강력한 우승 후보다.

한편 SK텔레콤은 갤러리 경품으로 US 오픈 최경주 입업 캐디권을 내걸었다. 미국 왕복항공권과 US오픈 전 라운드 관람권 등이 포함된다. /김민준기자

김비오 최경주

이대호 6경기 연속 안타

'빅보이' 이대호(31·오릭스)가 6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다.

이대호는 14일 일본 효고현 고시엔구장에서 열린 일본프로야구 한신 타이거스와의 인터리그 첫 경기에서 4번 타자 겸 1루수로 선발 출장해 3타수 1안타를 치고 볼넷 하나를 골라냈다. 6일 라쿠텐 골든이글스전부터 6경기 연속 안타 행진이다. 안타 하나를 추가해 시즌 타율 0.341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대호는 1회 첫 타석에서 제이슨 스탠드릿지를 상대로 우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이어 3회 볼넷을 골라 출루했고, 6회 선두타자로 나서 2루수 앞 땅볼로 아웃됐다. 그러나 8회 마지막 타석에서 좌전 안타를 쳤다. /김민준기자

박인비 美스포츠아카데미 '4월의 선수' 후보

세계여자골프 랭킹 1위 박인비(사진)가 미국스포츠아카데미(USSA)가 선정하는 '4월의 선수' 여자 부문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USSA는 최근 박인비와 여자 테니스 세계 2위 마리아 샤라포바(러시아) 등 6명을 4월의 선수 후보로 꼽고 온라인에서 전 세계 팬들을 상대로 투표를 받고 있다.

박인비는 지난달 메이저대회인 크래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에서 우승해 스테이시 루이스를 제치고 세계랭킹 1위로 올라선 점을 인정받았다. 한국 선수로는 2010년 신지애에 이어 두 번째로 5주 연속 1위를 지키고 있다.

박인비는 또 4월 말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노스텍사스 슛아웃에서 시즌 3승째를 달성하는 등 거침없이 승 수를 쌓고 있다.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포르쉐 그랑프리를 2년 연속 석권하는 등 시즌 2승을 거둔 샤라포바도 당당히 수상 후보로 나섰다.

AS 모나코 "박지성 오라"

프랑스 AS 모나코가 다음 시즌 잉글랜드 2부 리그로 추락하는 퀸스파크 레인저스(QPR)의 박지(사진)성을 노린다는 보도가 나왔다.

영국 축구전문지 골닷컴은 14일(한국시간) "AS 모나코가 1부로 승격하는 다음 시즌에 리그 우승을 목표로 팀을 리빌딩할 것"이라며 "박지성 외에 파트리스 에브라(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카를로스 테베스(맨체스터 시티) 등을 영입하려 한다"고 보도했다.

골닷컴은 모나코 구단주인 러시아 백만장자 드미트리 리볼로블레프가 첼시, 맨시티, 파리 생제르맹을 따라 비용을 과감하게 투자해 팀을 재건하려는 구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박지성에 매력을 느끼는 것은 경기력 외에도 아시아 시장 때문으로 박지성이 부상에 시달린 탓에 QPR에서의 역할은 제한적이었고, 팀이 2부로 강등되면서 올여름 이적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민준기자

다음 시즌 1부 승격
에브라·테베스 등에 러브콜

스포츠브리핑

■ 이규섭 은퇴 지도자 연수

이규섭(36·서울 삼성)이 정든 농구 코트를 떠난다.

삼성은 14일 이규섭이 은퇴 후 구단 지원을 받아 미국으로 지도자 연수를 떠난다고 발표했다. 이규섭은 2000년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삼성 유니폼을 입고 줄곧 삼성에서만 뛰었다. 198㎝의 큰 키를 앞세워 골 밑은 물론 외곽 3점슛에도 능해 2000~2001 시즌 신인왕을 차지하며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다.

■ 다저스 2연승 끝 또 패배

LA 다저스가 투타의 동시 부진으로 연승을 '2'에서 마감했다.

다저스는 14일 열린 메이저리그 워싱턴 내셔널스와의 홈경기에서 2-6으로 졌다. 선발 투수로 나선 조시 베켓이 3이닝 동안 삼진 5개를 솎아냈지만 3피안타에 4점을 내줘 이날 패전투수가 됐다. 디저스 방망이는 7⅔이닝 동안 9안타를 치고도 2점을 뽑는 데 그쳤다.

프로야구 전적 (14일)

■ 잠실

팀				계
삼성	200	200	012	7
두산	000	010	200	3

■ 목동

팀				계
한화	200	001	400	7
넥센	010	000	010	2

■ 광주

팀				계
SK	000	000	010	1
KIA	000	020	01X	3

■ 사직

팀					계
NC	000	000	101	000	2
롯데	000	000	110	000	2

전국민 영어회화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통문장 학습법의 창시자 코넬리우스의 4단계 기초회화 훈련법

Day 25 My friend spent his childhood in California. 이웃과 친구들에 대해 말하기

간 대화 훈련

▶ 우리말을 영어로 바꾸어 다음 대화를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A So 누가 길 아래쪽 크고 흰 집을 샀어요?
B Oh, an elderly man rented the house.
A I see. It's a beautiful home.
B I think he is very lucky.

정답 who bought the big white house down the street?

생생영어팁

▶ We have many mutual friends.
우리는 서로 잘 아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We all know each other pretty well (우리는 모두 서로를 잘 알아요.)과 비슷한 뜻으로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mutual은 '쌍방의 다 해당되는'이란 뜻으로 관계 쓰이는 단어이고 mutual friend는 둘 다 알고 지내는 친구를 이란 뜻입니다.

ex. He is our mutual friend.
그는 우리가 서로 잘 아는 친구예요.

Do you have many mutual friends?
당신들은 서로 잘 아는 친구들이 많이 있나요?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o.kr
출처 New English 900 Vol.2

Business English 데미덱 이메일사전

명절과 공휴일에 대해 말할 때
Talking about national holidays and events

추수감사절은 어땠어요?
How was your Thanksgiving?

즐거운 크리스마스 연휴 보내셨길 바랍니다.
I hope you had a good Christmas break.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Happy new year!
Best wishes for the new year!

선거일에 영업하나요?
Will you be open on Election Day?

크리스마스와 새해 첫날 사이에는 사무실을 열지 않습니다.
The office will be closed between Christmas and New Year's Day.

TOEIC ▶ ETS TOEIC Test RC 공식실전서 1000

01 Admission is free for children three years of age and ______
(A) until (B) through
(C) between (D) under

02 Lawton Airways has announced that it will ______ increase its nonstop service from Cransen to Hopley City.
(A) exactly (B) finely
(C) importantly (D) substantially

01. 3세 미만 어린이들에게는 입장이 무료다.
해설 문맥상 '3세와 그 이만'이 적합하므로 (D) under를 쓴다. under는 전치사와 부사로 사용되어 ~ 이하에, 미만으로'를 나타낸다.
어휘 admission 명 입장료 free 형 무료의, 공짜의
정답 (D) under

02. 로튼 항공사는 크랜센에서 호플리 시티로 가는 직항편을 상당히 증편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해설 상당히 늘리다'가 적합하므로 (D) substantially를 쓴다. 부사 considerably, significantly(상당히)도 정답이 될 수 있다.
어휘 exactly 부 꼭, 정확하게 finely 부 훌륭하게 importantly 부 중요하게
정답 (D) substantially

TOEIC Speaking ▶ ETS TOEIC Speaking Prep Book

Part 6 의견 제시하기
의견과 이유 및 근거를 말할 때 쓰는 표현

- 이유 말하기

Because people can share their ideas and have something in common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나눌 수 있고, 공통점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The first reason is that it costs a lot of money to go abroad.
첫 번째 이유는 외국에 가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 순서대로 열거하기

First (of all), people want to spend quality time with others
우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For one thing, my family always comes before my job.
우선 한 가지 이유는 가족이 항상 일보다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Second, thanks to the internet, children can learn everything they want to know
둘째로, 인터넷 덕분에 아이들은 알고 싶은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